

탈냉전 후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전략과 그 영향

윤영덕*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탈냉전 후 중국의 대아세안 전략
 - 1)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아세안의 지위
 - 2)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3. 탈냉전 후 아세안의 대중국 전략
 - 1) 아세안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의 지위
 - 2) 아세안의 대중국 정책
4. 탈냉전 후 중국-아세안 관계의 현황과 국제적 영향
 - 1) 상호신뢰와 정치·외교 협력의 강화
 - 2) 경제협력의 확대
 - 3)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시대 창설 합의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동유럽의 급변과 동서독 통일 및 소련의 해체 등 20세기 80년대 말부터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대변되는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가간 경쟁의 중심 이동 및 각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전지구적 범위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

첫째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국제정치학자와 정치가들 사이에서

* 韓神大學校 學術院 研究員

1) 이에 대해서는 秦亞青, 「冷戰後中國的安全意識和戰略選擇」, 劉山, 薛君度 主編, 『中國外交新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76-79쪽 참조.

반복적으로 토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체제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소간의 치열한 대립을 특징으로 하던 양극체제가 소련의 몰락으로 인해 이미 종말을 고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들 작금의 이러한 국제체제적 특징을 국제체제 구조의 전환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환기적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체제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의 특징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또 하나의 특징은 냉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제체제가 다극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제관계의 과정(international process)과 의제(international agenda)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국가간 경쟁의 중심이 군비경쟁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소위 "종합국력"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국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행위자간의 상호관계와 작용의 공간이 전지구적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 것 또한 탈냉전 후 국제환경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간의 타협할 수 없는 대항으로 인해 국제체제의 각 행위자간 상호관계가 각 진영의 내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던 반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이러한 대결구조가 사실상 종식됨으로써 각 행위자간의 새로운 관계망들이 잇달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세계 각국의 안보와 발전에 새로운 조건들을 형성하면서 역사적인 기회와 전대미문의 도전들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던 개발도상국들이 탈냉전 후 국제환경의 변화가 제공하는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고 수많은 도전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문제는 단지 그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는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이 탈냉전 이후 보여주고 있는 급속한 부상과 이들 상호 관계의 급격한 발전이 학계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탈냉전 후 세계경제의 보편적인 성장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경제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6위권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진행되면서 그 영향력도 크게 신장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과 아태지역의 국제문제에 있어서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은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괄목할 만한 것이다. 한편, 아세안은 제3세계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아태지역의 국제정치경제관계에서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탈냉전 후 아세안은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잇달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출범시킴으로써 이미 동남아 10개국 5억 5,000만 인구를 포괄하는 “동남아공동체” 실현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확보했다. 특히, 중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이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상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탈냉전 후 중국과 아세안이 각자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양자관계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다. 1991년에 정식으로 관계를 설정한 중국과 아세안은 이후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국제환경의 변화는 각국의 대외전략 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탈냉전 후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밀착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자의 상호간 필요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탈냉전 후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아세안의 대외전략에서 상호간 전략의 목표와 정책기조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형성되고 있는 양자관계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아세안 관계의 발전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탈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문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의 지위와 그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탈냉전 후 중국의 대아세안 전략

1)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아세안의 지위

중국에게 있어서 동남아 지역은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이 야심차게 제시하고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의 발전이라는 국가전략의 목표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탈냉전 후 개혁개방의 확대와 심화를 통한 자국의 현대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적인 순위는 역시 주변지역의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 지역은 중국의 주변국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불안정성을 안고 있었던 지역으로써 중국의 국내 경제발전과 대외관계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은 중국의 주변지역 안정이라는 대외전략 목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은 중국이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자신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은 동남아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파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²⁾ 이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부터 점차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동남아 지역과 아세안이 차지하는

2) 이와 관련해서는 韓鋒, 「9·11事件對東南亞的影響和中國與東盟的關係」, 『東南亞縱橫』, 2003年第1期, 15쪽; 曹雲華, 『探究亞太新秩序』(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141쪽, 190쪽 참조.

비중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판단된다.

탈냉전 후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동남아 지역과 아세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개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보 환경의 측면에서, 동남아 지역은 중국의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지역이다. 탈냉전 후 중국이 주변지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발전이 주변지역의 안정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써는 주변지역에서의 안보이익이 날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남아 지역이 중국의 안보전략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그만큼 중요해 지면서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이 중국의 주변지역 안보환경 조성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와 대만문제 등에서 여전히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아세안의 조직 확대로 중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역의 강대국들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의 강대국들과 합세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세안과의 관계의 안정성 여부 및 그 발전의 추세가 중국의 대외전략 목표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아세안은 중국의 현대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협력 조직으로써 그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차지하는 동남아 지역의 가치가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및 인구의 증가와 제한적인 자원과 공간 사이의 모순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해양 개발이 본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안보 문제가 이미 국가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³⁾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았을 때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와 류큐

3) 이에 대해서는 段廷志, 張炳峰, 「東亞地緣戰略環境與中國海上安全」, 『當代亞太』, 2004年 第4期, 8쪽 참조.

(琉球) 제도, 대만, 동남아의 제 군도로 연결되는 일종의 “섬들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islands chain)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사슬의 북부는 이미 미일동맹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정면은 대만에 의해 가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지역만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있어서 견제가 비교적 적고 안전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이 관할하고 있는 영해의 해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동쪽으로는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서쪽으로는 인도양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 중국의 해양개발과 해양 공간 이용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것이다.⁴⁾ 또한, 동남아 지역은 6억에 육박하는 인구나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중국의 중요한 해외시장 및 해외 직접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은 중국의 5대 무역 파트너로서 대외무역에서의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직접 투자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셋째, 대외전략의 측면에서, 아세안은 중국의 주변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 지역조직으로써 지역 및 세계적인 국제문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파트너십 외교전략과 주변외교, 지역협력, 다극화 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아세안은 보다 통합적인 면모로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세안은 동남아의 지역통합 가속화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ASEAN+3) 등의 창립 주도,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발전 촉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이처럼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 및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개

4) 陳峰君, 「加強中國與東盟合作在彈略意義」, 『國際政治研究』, 2004年 第1期, 27쪽. 동남아 지역은 중국의 해의 해양운수에 있어서 관문에 위치해 있다. 현재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유와 중요한 전략 물자들은 동남아 지역의 해상을 거쳐 들어오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이미 원유의 수입 의존도가 30%를 넘어 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亞太戰場—世界主要力量的發展與角逐』(北京:時事出版社, 2002), 380쪽; 劉新華, 秦儀, 「中國的石油安全及其戰略選擇」, 『現代國際關係』, 2002年 第12期. 참조.

발도상국들로 구성된 아세안이 국제정치의 민주화와 국제체제의 다극화 및 국제 정치경제신질서 구축문제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중국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보다 안정적이고 통합력이 강화된 아세안이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반패권주의와 국제체제의 다극화 및 국제신질서 구축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역 및 세계 국제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점차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앞에서 살펴 본 전략적 판단을 기초로 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영역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아세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⁵⁾ 탈냉전 이후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서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두려움과 경계 및 적대적인 입장에서 신뢰와 협력 및 지지의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로의 적극적인 편입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과 인권 및 국제질서 등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과 주장을 견지함으로써 아세안이 중

5) 이와 관련해서는 李慶四, 「中國與東盟關係: 睦鄰外交的範例」, 『人大復印復刊: 中國外交』, 2004년 7월 7기, 42쪽; 曹雲華, 「東盟與大國關係評析」, 『國際政治研究』, 2003년 2기, 132쪽; 張錫鎮, 「中國外交的又一大手筆-中國與東盟建立戰略伙伴關係并正式加入'東南亞友好合作條約」, 『人民日報』, 2003년 10월 9일자 참조.

국을 통해 자신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국들의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부정적인 외부 영향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세안은 탈냉전 이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동남아 지역의 권력 공백을 대체하면서 지역적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지역의 안정과 지역 국제문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시키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⁶⁾ 탈냉전 이후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직접투자도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란창(瀾滄)강-메콩강 공동 개발 등을 비롯한 소지역 협력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대아세안 경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경제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국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더불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경제 자체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시장 개척을 통해 중국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고려가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朱炎, 「중국과 ASEAN의 경제관계: 경쟁과 협력의 현황과 전망」, 『極東問題』24권 10호 통권 284호(2002. 10), 제6쪽 참조.

셋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문제에 있어서 아세안과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탈냉전 이후 지역적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국제문제에 있어서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주권과 인권 문제, 국제조직과 지역협력 조직의 운영 방안, 기타 이슈가 되는 국제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중국과 유사한 인식과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이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국제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면서 상호 의견 교환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세안이 창립을 주도한 각종 다자간 대화협력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들 조직 내에서의 상호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옹호해 나가고 있다.

넷째, 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담판의 방식을 통해 “쟁점은 과제로 남겨 두고 공동 개발하자”(擱置爭議, 共同開發)⁷⁾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상호간의 선린우호 관계와 정상적인 교류가 영향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이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 및 영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해 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당면해서 우선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한 국내 현대화 건설에 주력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절실한 중국으로써는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영토 문제로 인해 관련국가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중국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영토 분쟁에 있어서 “쟁점은 과제로 남겨두고 공동 개발하자”는 중국의 주장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10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조어도(釣魚島)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후 덩샤오핑은 1984년 이와 관련한 견해를 구체화 했는데 이때는 조어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간에 문제가 되고 있던 난샤(南沙)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적인 영토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공식화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張小明, 『中國周邊安全環境分析』(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3), 293-294쪽 참조.

3. 탈냉전 후 아세안의 대중국 전략

1) 아세안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의 지위

탈냉전 후 아세안의 대외전략은 동남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아세안 조직의 확대를 통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응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국제문제를 논의하는 다자조직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최소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독립적 영향력을 구축하며 역외 강대국간의 세력균형 외교전략으로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최종적으로 아태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탈냉전 후 아세안의 이러한 대외전략 목표 실현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끊임없이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이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10개국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조직으로 확대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⁸⁾ 이러한 추세는 탈냉전 후 동남아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가 다른 어떤 역외 국가들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세안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⁹⁾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세안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8) 아시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군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동남아 지역에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를 포함한 11개국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만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王正毅, 『邊緣地帶發展論-世界體系與東南亞的發展』(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7), 22-26쪽 참조.

9) 이에 대해서는 閻學通 等著, 『中國與亞太安全-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北京: 時事出版社, 1999), 197쪽; 王士錄, 王國平, 『走向21世紀的東盟與亞太-東盟的發展趨勢及其對亞太的影響』(北京: 當代世界出版社, 1999), 121쪽, 269쪽; 呂麗君, 『對冷戰後中國與東南亞國家關係的戰略思考』, 『東南亞縱橫』2004年 第4期, 4쪽; 陳喬之 等著, 『冷戰後東盟國家的對華政策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43쪽;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서울: 대왕사, 1999), 제300쪽 참조.

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태지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국제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중의 유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력이 증대되면서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중국이 동남아 지역의 강대국간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 등 역외 강대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은 또한 중국의 부상어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아세안의 발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남아의 인접국인 중국이 이미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록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외자 유치와 해외시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상호간의 밀접한 경제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세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과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중국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개최 등과 같은 기회를 이용해 중국 경제 발전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이데올로기 침투와 공산세력 지원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고, 국력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여러 가지 국제문제에 있어서 아세안과 유사한 인식과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세안과 중국이 전략적인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세안은 인권과 민주, 환경 등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공세에 중국과 공

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아세안이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지역 국제문제에서 주도성을 확보하며 ARF와 APEC 등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세안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복잡하고 모순된 상태에 있다.¹⁰⁾ 표현 강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아세안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아세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않고 있다. 아세안의 지도자들과 언론 매체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야기 할 때, 중국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도전이나 경쟁, 우려 등 비교적 온화한 수사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력의 증강에 따라 “중국 위협론”이 동남아 지역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은 서방 국가들의 그것과는 달리 동남아가 처한 지정학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 규모면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중소국가들이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토 및 영해와 관련한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위협(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협(경제적 경쟁), 그리고 잠재적 위협(중국국력의 증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을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수상과 같은 경우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중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커다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소위 ‘중국 위협론’은 잘못된 것이며 유해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또한 그

10) 이에 대해서는 曹雲華, 「遠視不如近隣-中國加入‘東南亞友好合作條約’的意義」, 『世界知識』, 2003年 第20期, 28-29쪽; 陳喬之 等著, 앞의 책, 27쪽 참조.

는 “발전된 중국은 성장을 추동하는 기관차가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이후에는 전 세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부강한 중국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강을 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무역과 경제 교류를 통해 중국과 재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권고한 바 있다.¹²⁾ 고축동 싱가포르 전 수상도 중국의 부상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궁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¹³⁾ 이밖에도 아세안 국가들의 언론 매체와 여론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선 급속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부상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중국의 지역 강대국으로써의 영향력 확대를 객관적인 실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을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조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가 아세안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아세안의 대중국 정책

아세안은 탈냉전 후 변화된 내외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기초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은 하나의 지역적 조직으로써 대외 문제에 대한 입장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문화된 대외 전략과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것도 각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대중국 정책 중에서 공통된 부분으로 집중돼 나타날 뿐이지 결코 각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모든 영역의 정책을 포괄하는 표현은 아니다. 다시 말해 아세

11) 『人民日報』, 1995年 12月 18日.

12) 馬哈蒂爾, 「中國的社會主義市場經濟: 東盟的一個觀點」, 『南洋商報』, 1994年 5月 12日. 陳喬之 等譯, 앞의 책 25쪽에서 재인용.

13) 吳作棟, 「中國改革波瀾壯闊」, 『聯合早報』, 2002年 8月 19日.

안 각 회원국들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태도와 입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대중국 정책도 각각 다르다.¹⁴⁾

그러나 아세안 각국이 그들의 집합체인 아세안 조직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즉, 아세안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중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와 ARF 등과 같은 다자간 대화기제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있어서 중국이 아세안의 의도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세안의 대중국 정책은 미국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즉, 중국의 과도한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견제와 이용의 병행”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으로써는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역외 강대국들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이 일종의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¹⁵⁾

탈냉전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아세안이라는 형식을 통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으로 중국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집단이 갖는 장점으로 각개 국가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국가가 강대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력균형 외교전략으로써 역외 강대국을 포함한 역량으로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¹⁶⁾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세안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집단적 역량을 통한 공동 대응”이며 또 하나는 “다자간 기제를 통한 견제”¹⁷⁾가 그것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阿米特烏·阿查亞(Amitav Acharya), 『遏制、接觸, 抑或反控制? 馬來西亞對新興中國的對策』, 阿拉斯泰爾·伊恩·約翰斯頓(Alastair Iain Johnston), 羅伯特·羅斯(Robert Ross) 主編, 『與中國接觸—應對一個崛起的大國』(北京: 新華出版社, 2001), 180-181쪽 참조.

15) 王士錄, 王國平, 앞의 책, 321쪽.

16) 이에 대해서는 陳向陽, 『中國睦鄰外交: 思想·實踐·前瞻』(北京: 時事出版社, 2004), 269쪽 참조.

17) 일반적으로 다자간 기제를 통한 견제 전략은 기존의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에게 취하는 정책으로

첫째, 집단적 역량을 통한 공동 대응이라는 정책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무엇보다도 아세안 국가 자체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특히 최근 들어 아세안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점차 자신이 중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⁹⁾ 더군다나 아세안이 보기에 일본이 자국의 경제침체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이러한 조건에서 아세안은 중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어떠한 회원국도 단독으로 자신의 역량이 열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의 역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의 전체적인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아세안이 중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다자간 관계를 이용해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려는 목적과 함께 집단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²¹⁾ 예를 들어, 아세안이 회원국들간의 협의와 입장 조율

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신흥 강대국을 현존하는 레짐의 구조로 인입함으로써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신흥 강대국에게 국제조직의 회원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강대국과 함께 자신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기존 강대국은 이렇듯 서로의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협력적인 방식을 통해 국제체제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신흥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강대국들이 일종의 합법성에 대한 느낌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강대국이 다자간 레짐을 이용하는 것은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을 하나의 정책망에 묶어 놓음으로써 이러한 정책망을 이탈해 독자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사용할 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이 현존하는 레짐의 성원이라는 위치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며, 이러한 레짐에 소속되었을 때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반면 비소속의 성원은 이러한 이익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蘭德爾·施韋勒(Randall Schweller), 『應對大國的崛起: 歷史與理論』, 阿拉斯泰爾·伊恩·約翰斯頓(Alastair Iain Johnston), 羅伯特·羅斯(Robert Ross) 主編, 앞의 책, 17쪽 참조.

18)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1997), 258쪽.

19) 約翰·翁(John Wong), 『亞洲金融危機復蘇中的東盟和中國』, 胡鞍綱 主編, 『中國走向』(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0), 127쪽.

20) 阿米特烏·阿查亞, 앞의 글, 180쪽.

21) 이에 대해서는 葉自成, 『中國大戰略-中國成爲世界大國的主要問題及戰略選擇』(北京: 中國社會科

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우선적인 사안으로 간주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온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아세안은 ASEAN-PMC, ARF, APEC, ASEM 등과 같은 다자간 기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기제와 신뢰구축기제의 구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제들 속에는 당연히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기제도 포함하고 있다.²²⁾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강경한 억제정책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ARF 등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역 국가들과의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³⁾ 탈냉전 후 아세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을 각종 다자간 기제의 대화 과정에 끌어 들임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협력적인 행위를 추구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세안의 이러한 전략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요컨대 중국은 ARF의 창립에 참여하면서도 초기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과 계획에 따라 이 조직을 운용할 뜻이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AR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²⁴⁾ 이후 중국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아세안이 이니셔티브를 취한 각종 다자간 대화협력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學出版社, 2003), 345쪽 참조.

22) 葉自成, 위의 책, 345쪽.

23) 唐世平, 張蘊嶺,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 2004年 第6期, 11쪽. 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는 Jusuf Wanandi, "ASEAN's China Strategy: Towards Deeper Engagement", *Survival*, Vol. 38, No. 3(Autumn 1996), 117-128쪽; Amitav Acharya, "Seeking Security in the Dragon's Shadow: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Emerging Asia Order",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IDSS) Working Paper*, No. 44(2003), <http://www.idss.edu.sg/WorkingPapers/WP.pdf>. 참조.

24) 曹雲華, 「在東亞新格局中的中國-東盟合作: 論新型的中國-東盟關係」, 『東南亞研究』, 2004年 第2期, 21쪽.

4. 탈냉전 후 중국-아세안 관계의 현황과 국제적 영향

1) 상호신뢰와 정치·외교 협력의 강화

1990년대 초 중국과 동남아 10개국이 공히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외교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991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1992년에는 중국이 아세안의 협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아세안의 주도로 창립된 ARF에 중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1995년에는 중국과 아세안의 외무 차관급 고위관료회의라는 정치대화협상 제도를 마련했고, 1996년에는 중국이 아세안의 완전대화 파트너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7년에 개최된 제1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간에 “선린과 상호신뢰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양자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2003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선언하고 중국이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공식 가입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관계가 보다 긴밀해졌다. 중국과 아세안은 “선린과 상호신뢰의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선언한 6년의 기간 동안 고위급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양자간의 협력을 심화시켰다.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관계가 공고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양자간의 대화와 협력기제가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은 1990년대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미 정례화와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상회의. 아세안-중국 정상회의는 양자간의 대화 채널 중 최상의 정책결정 기구로써 양자관계의 중대한 의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세안-중국 정상회의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 2) 외무장관 회의.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외무장관 회의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 회의와 아세안+한중일 외무장관 회의, ARF 연례회의 등이 있다.
- 3) 6개 실무 조직.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실무 조직으로는 아세안-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 아세안-중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아세안-중국 고위급회의, 아세안 베이징위원회, 아세안-중국 공동협력위원회, 아세안-중국 비즈니스 이사회 등이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탈냉전 이후 일련의 대화협력 기제와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해 양자간의 신뢰를 공고히 해오고 있는데 이는 2003년에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과 중국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으로 정점에 달했다. 특히 중국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은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협력을 제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조약 가입은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발휘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과 같은 해에 조약에 가입했으며 일본, 러시아, 한국도 연이어 이 조약에 가입했다. 이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이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전체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국제적인 조약이 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아세안은 탈냉전 후 동남아 중립지대와 비핵지대 문제, 아태지역의 안보와 협력 문제, 인권과 민주 등 기타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은 APEC,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ARF, ASEM, 유엔 등과 같은 다자간 조직과 국제기구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양자간의 이러한 협력은 국제무대에서 서로의 발언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한 현재의 국제질서를 개혁하는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경제협력의 확대

탈냉전 후 국가간 경쟁의 중심이 경제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합국력의 경쟁으로 변화됨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 발전을 통한 국제적 지위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곧바로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비중을 높여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아세안이 상호간의 교역규모와 직접 투자 및 소지역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 서 보여주고 있는 급속한 밀착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첫째, 탈냉전 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2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9.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90년 약 70억 달러에서 2002년의 약 54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전년도보다 42.9% 확대된 782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간의 교역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1990년 6.1%, 2000년 8.4%, 2002년 8.9%, 2003년 9.2%).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에서 아세안이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3년에는 그 액수가 164억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²⁵⁾

둘째, 중국과 아세안간의 상호 직접 투자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말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액은 총 534억 6,800만 달러로 중국 외자 유치 총액의 7.2%를 차지했으며, 실제 투자액도 261억 7,500만 달러로 중국에 실제 투자액 외자 총액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대아세안 투자액도 10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들

25) 관련 데이터는 杜如訂, 「建立東盟-中國自由貿易區的機遇與挑戰」, 『東南亞縱橫』2003年 第1期, 5쪽; 陳雯, 「中國與東盟雙邊貿易關係評析」, 『當代亞太』, 2003年 第8期, 42-44쪽; 廣西社會科學院東南亞研究所課題組, 「建立中國-東盟自由貿易區的機遇與挑戰」, 『東南亞縱橫』, 2003年 第10期, 7쪽; 李紅, 「2003年中國與東盟區域貿易分析及前景豫測」, 『東南亞縱橫』, 2004年 第3期, 46쪽 참조. 중국과 아세안간의 교역 성장률과 아세안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데이터를 참고로 필자가 산출한 것임.

의 중국과 아세안간의 직접 투자 확대가 아세안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흐름보다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기업의 대아세안 투자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전년 대비 85.5배 증가한 7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외자 유치 총액의 15.5%를 차지하며 대말레이시아 직접 투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태국에서는 2001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2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0.5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²⁷⁾ 동남아가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에서 첫 번째 목적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아세안간의 경제협력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양자간의 소지역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아세안의 소지역 경제협력 중에서 가장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란창강-메콩강 유역 공동개발 사업이다. 란창강-메콩강 유역은 중국의 윈난(雲南)성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총면적 233만 1,900km², 총인구 약 2억 4,600만을 차지하고 있다.²⁸⁾ 이 사업은 1992년 정식으로 제시된 이후 이미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데 메콩강 소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제1차 관련국 정상회의가 소집된 2002년도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공동 개발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관련국들은 향후 에너지와 교통, 통신, 환경보호, 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변경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장벽들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게 된다. 특히 중국은 이 회의에서 “중국의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과 관련한 국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국들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천명했다.²⁹⁾ 이후 중국은 2003년 8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장관급 회의에서 수자원 개발 이용과 환경 보호 및 무역 등의 분야에서 관련국들의

26) 『東南亞縱橫』, 2003年 第10期, 7쪽 하단의 관련 통계 참조.

27) 朱炎, 앞의 글, 71쪽.

28) 란창강-메콩강 유역 공동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劉小龍, 祈苑玲, 「未來五年瀾滄江-湄公河次區域合作展望」, 『當代亞太』, 2003年 第5期, 47-53쪽 참조.

29) 이 보고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王勤, 「中國參與湄公河次區域經濟合作及其進展」, 『南洋問題研究』, 2004年 第1期, 39-46쪽 참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란창강-메콩강 지역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선행(先行)시범지역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³⁰⁾

이밖에도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가 국제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문제는 유럽이나 미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경제협력이 지체되어 있던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진척과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따로 짚을 만들어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AFTA)의 창설을 합의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2000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당시 중국 총리였던 주룽지(朱鎔基)에 의해 공식 제안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1년 후인 2001년 11월 제5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내에 양자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아세안-중국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 기본협정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해 2004년 6월까지 이를 마무리하고 2005년 1월부터 양자간의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개시하며 2010년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게 된다.³¹⁾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구조 조정 및 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양자간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환경 하에서 지속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30) 陳文, 「2003年的東盟與中國-東盟自由貿易區」, 『東南亞縱橫』, 2004年 第3期, 44쪽.

31) “아세안-중국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nom Penh, Cambodia, 5 November 2002.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aseansec.org/13196.htm> 참조.

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외무역을 다원화하고 주변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아세안 국가들로서도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국제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가 한국과 일본을 자국함으로써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공식 협상을 개시해 2012년까지 양자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도 2005년부터 2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 2009년까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은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적인 고려가 기본적 출발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가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한국과 아세안, 일본과 아세안간의 경제협력 및 한중일 3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및 홍콩, 타이완, 마카오, 북한 등을 포괄하는 전체 인구 약 20억에 GDP 8조 달러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다그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평가도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다.³²⁾ 결국,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화시대에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지역 공동체 건설의 구상을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가 갖는 두 번째 국제적 의의는 개발도상국간의 소위 “남남협력”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본을 유치하거나 투자된 자본의 탈퇴를 막기 위해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레짐경쟁’이 격심해지

32) 廣西社會科學院東南亞研究所課題組, 앞의 글, 5쪽.

고 있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자원과 산업구조 등의 부문에서 상호 보완성과 대체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 간에는 해외 자본과 기술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들에게 내거는 조건을 경쟁적으로 낮추게 된다. 흔히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이라고 하는 현상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상화되는 것이다.³⁴⁾ 개발도상국들 간의 이러한 악성적인 상호 경쟁은 각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남남협력과 지역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는 서로의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상호간의 악성적인 경쟁을 줄여 주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 모두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서로간의 보다 심화된 경제협력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5. 맺는 말

탈냉전 후 역사적인 기회와 전대미문의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변화된 국제환경 하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거둔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중국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기반으로 국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아세안도 동남아 10개국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내부 응집력을 강화해 지역문제와 국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주목을 끄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목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탈냉전 이후 급격히 밀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

33) 김학노, 「세계화와 노동-자본 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서울: 사회평론, 2001), 352쪽.

34) 유석진, 「세계화와 국가주권」,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 위의 책, 326쪽.

미 정치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선언하면서 양자간의 경제통합을 모색하고 있고, 외교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주권과 인권, 민주주의,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안보의 영역에서도 각자의 경제발전을 지속화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탈냉전 후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호 협력의 토대는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공동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중국과 아세안이 각종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은 각자의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양자관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자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결코 일방적인 짝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각자의 대외전략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탈냉전 후 중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각자가 스스로의 경제발전에 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자관계의 발전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협력을 가속화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은 ARF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등 지역 다자안보기제와 경제협력기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지역 경제협력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이 일본과 한국의 조약 가입으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보한 것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가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35) 曹雲華, 徐善賓, 「陸滯外交政策與中國-東盟關係」, 『當代亞太』, 2004年 第2期, 58-59쪽.

마지막으로 중국과 아세안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함의를 동아시아 지역주의라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는 1960년대 일본 경제의 경이적인 발전과 197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및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지역 경제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경제협력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안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과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 구상이 역내 국가들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일부 역외 국가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러한 국면에 전환점이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역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보다 심화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실행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은 짧은 시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양자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이미 양자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개별적인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중국학자는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로 표현하고 있다.³⁶⁾ 소위 “경쟁적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중일 3국이 각각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아세안+한중일, 즉 10+3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한 상이한 지역주의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아세안 외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지역협력이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경제

36) 龐中英, 「東亞地區主義的進展與其問題-能否打破現實主義的思想牢籠」, 『東南亞研究』, 2003年 第3期, 6쪽. 한 일본 학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가 각국간의 경쟁적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山本吉宣, 「全球化與東亞地區合作」, 『國際政治研究』, 2003年 第1期, 89쪽 참조.

중심"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그 시각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우회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서울: 대왕사, 1999).
- 김학노, 「세계화와 노동-자본 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서울: 사회평론, 2001).
- 유석진, 「세계화와 국가주권」,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서울: 사회평론, 2001).
- 朱焯炎, 「중국어 ASEAN의 경제관계: 경쟁과 협력의 현황과 전망」, 『極東問題』24권 10호 통권284호(2002, 10).
- 曹雲華, 『探究亞太新秩序』(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 陳喬之 等著, 『冷戰後東盟國家的對華政策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陳向陽, 『中國睦鄰外交: 思想·實踐·前瞻』(北京: 時事出版社, 2004).
- 王士錄, 王國平, 『走向21世紀的東盟與亞太-東盟的發展趨勢及其對亞太的影響』(北京: 當代世界出版社, 1999).
- 王正毅, 『邊陲地帶發展論-世界體系與東南亞的發展』(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7).
- 閻學通 等著, 『中國與亞太安全-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北京: 時事出版社, 1999).
- 葉自成, 『中國大戰略-中國成爲世界大國的主要問題及戰略選擇』(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張小明, 『中國周邊安全環境分析』(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3).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亞太戰略場-世界主要力量的發展與角逐』(北京: 時事出版社, 2002).
- 阿米特烏·阿查亞(Amitav Acharya), 「遏制、接觸, 抑或反控制? 馬來西亞對新興中國的對

- 策, 阿拉斯泰爾·伊恩·約翰斯頓(Alastair Iain Johnston), 羅伯特·羅斯(Robert Ross)主編, 『與中國接觸—應對一個崛起的大國』(北京:新華出版社, 2001).
- 曹雲華, 「東盟與大國關係評析」, 『國際政治研究』2003年 第2期.
- 曹雲華, 「遠親不如近隣—中國加入『東南亞友好合作條約』的意義」, 『世界知識』2003年 第20期.
- 曹雲華, 「在東亞新格局中的中國—東盟合作: 論新型的中國—東盟關係」, 『東南亞研究』2004年 第2期, p. 21.
- 曹雲華, 徐善寶, 「睦隣外交政策與中國—東盟關係」, 『當代亞太』2004年 第2期.
- 陳峰君, 「加強中國與東盟合作的戰略意義」, 『國際政治研究』2004年 第1期.
- 陳琴雯, 「中國與東盟雙邊貿易關係評析」, 『當代亞太』2003年 第8期.
- 陳琴文, 「2003年的東盟與中國—東盟自由貿易區」, 『東南亞縱橫』2004年 第3期.
- 杜如汀, 「建立東盟—中國自由貿易區的機遇與挑戰」, 『東南亞縱橫』2003年 第1期.
- 廣西社會科學院東南亞研究所課題組, 「建立中國—東盟自由貿易區的影響」, 『東南亞縱橫』2003年 第10期.
- 韓琴鋒, 「『9·11』事件對東南亞的影響和中國與東盟的關係」, 『東南亞縱橫』2003年 第1期.
- 蘭德爾·施韋勒(Randall Schweller), 「應對大國的崛起: 歷史與理論」, 阿拉斯泰爾·伊恩·約翰斯頓(Alastair Iain Johnston), 羅伯特·羅斯(Robert Ross)主編, 『與中國接觸—應對一個崛起的大國』(北京:新華出版社, 2001).
- 李琴紅, 「2003年中國與東盟區域貿易分析及前景預測」, 『東南亞縱橫』2004年 第3期.
- 李慶四, 「中國與東盟關係: 睦隣外交的範例」, 『人大復印復刊: 中國外交』2004年 第7期.
- 劉小龍, 祈苑玲, 「未來五年瀾滄江—湄公河次區域合作展望」, 『當代亞太』2003年 第5期.
- 劉新華, 秦儀, 「中國的石油安全及其戰略選擇」, 『現代國際關係』2002年 第12期.
- 呂艷君, 「對冷戰後中國與東南亞國家關係的戰略思考」, 『東南亞縱橫』2004年 第4期.
- 龐中英, 「東亞地區主義的進展與其問題—能否打破現實主義的思想牢籠」, 『東南亞研究』2003年 第3期.
- 秦亞青, 「冷戰後中國的安全意識和戰略選擇」, 劉山, 薛君度主編, 『中國外交新論』(北京:世界知識出版社, 1998).
- 山本吉宣, 「全球化與東亞地區合作」, 『國際政治研究』2003年 第1期.
- 唐世平, 張蘊嶺,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2004年 第6期.
- 王琴勤, 「中國參與湄公河次區域經濟合作及其進展」, 『南洋問題研究』2004年 第1期.
- 吳作棟, 「中國改革波瀾壯闊」, 『聯合早報』2002年 8月 19日.

約翰·翁(John Wong), 「亞洲金融危機復蘇中的東盟和中國」, 胡鞍鋼 主編, 『中國走向』(杭州:浙江人民出版社, 2000).

張錫鏞, 「中國外交的又一大手筆-中國與東盟建立戰略伙伴關係并正式加入東南亞友好合作條約」, 『人民日報』2003년 10월 9일.

『人民日報』1995年 12月 18日.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1997).

Jusuf Wanandi, "ASEAN's China Strategy: Towards Deeper Engagement", *Survival*, Vol. 38, No. 3(Autumn 1996).

Amitav Acharya, "Seeking Security in the Dragon's Shadow: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Emerging Asia Order".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IDSS) Working Paper*, No. 44(2003).

<Abstract>

Demise of the bipolar system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nations following the end of Cold-War period pose new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various nations. The emergence of China and ASEAN as important Asian developing countries has attracted attention both of academics and public opinion. China, which already has grown to the world's 6th largest economy, is consistently expanding its influence on international arena, while ASEAN, regarded as a successful regional cooperative model in the third world, is increasing its ro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and Asia-Pacific region. Moreover,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which developed rapidly since the post-Cold War era, is showing salient development in realm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This article proposes that increasing commitment of China and ASEAN to enhance mutual relationship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has been spurred by mutual needs to fulfill their respective foreign strategic objectives. Consequently, this article explores the mutual strategy and policy toward each other between China and ASEAN, and the current status of bilateral relationship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imate. Through the process, the article explores the implication of the development of Sino-ASEAN relations

on respective regions as well as its influence on reg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Key Words: Sino-ASEAN Relationship, China's Foreign Strategy, ASEAN's Foreign Strategy, International Influence